

컴퓨터 대화방 ‘글말’의 어휘에 대한 계량적 고찰

임 칠 성 (전남대)

— < 차례 > —

- I. 서론
- II. 계량 및 분석
 - 1. 고빈도어
 - 2. 품사별
 - 3. 어종별
- III. 대화방 언어의 글말적 성격
- IV. 결론

I. 서론

대화방의 언어는 이른바 N-세대들에게 생활 언어가 된 지 오래이다. 은희경(1999:25)은 대화방의 언어가 사회적으로도 나름의 성격을 지닌 언어의 한 종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의 아내가 유치원 다니는 아들을 자연 학습 캠프에 데려다주러 간 날이었다. 오랜만에 자동차 없이 나온 그는 회사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늦은 시각 지하철을 탔다. 그의 앞에 서 있는 두 여대생은 PC 통신에서 번개로 만난 상대에 대해 떠들어댔다. 세이가 들어 온 거야. 서울 사시면 저랑 드 라이브할래요, 라고. 어머 캡이다. 그래서? 저도 차 있어요, 라고 뺑을 짰지. 그랬더니 졸나 췌싸게 방을 만들어 갖고 초대를 하더라. 비밀 번호가 뭔지

아니? 에스 이 에스야. 들어갔어? 아니, 계속 세이를 보내더라. 잼있는 거 싫어요? 클쿠나, 함 하면 존데, 이런 식이야. 글쎄 근데 만나보니 중딩인 거 있지. 바로 기절 들어갔다는 것 아니니.

본고는 컴퓨터 공중통신망의 대화방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행위를 ‘글말하기’, ‘글말하기’의 매체를 ‘글말’이라 칭하고, 글말하기와 글말의 성격을 글말의 어휘를 대상으로 한 계량적 방법을 통해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글말하기란 일종의 말하기이지만 구두 언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말하기가 아니라 특별히 컴퓨터의 통신망을 통하여 글로써 이루어지는 말하기를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글말하기의 매체가 되는 글말은 쓰기 위한 매체인 글이나 단순히 말하기 위한 매체인 말과는 다른 차원의 언어적 성격을 지니는 독자적인 상징 체계이며 글말하기는 글쓰기나 말하기와는 차별되는 나름의 어법을 지닌다고 본다.

본고에서 계량의 대상으로 삼은 글말 자료는 1999년 3월 1일부터 1999년 8월 31일 기간 동안 국내 공중통신망에서 대화한 글말 중에서 임의로 갈무리한 것이다.¹⁾ 계량의 단위 설정은 기본적으로 줄고(1997)

1) 이 자료는 이선희(1999)에서 사용된 것 중에서 일부를 다시 사용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중, 고, 대학생들이나 그와 유사한 연령층이 대화한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듯이 이들 자료가 이른바 ‘글말’을 대표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이 논문이 안고 있는 중요한 한계이다. ‘글말’이 시간에 따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동시대일지라도 연령에 따라 성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이 자료를 사용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이러한 여러 가지 변인들이 지금까지 우리 의사소통 체계의 중심 매체인 ‘글’이나 ‘말’의 성격과 ‘글말’의 성격을 계량적으로 비교 고찰함으로써 글말의 성격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방해 요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들 자료들이 글말의 일반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으며, 반 글말적 성격을 드러내지는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글말의 변화 추이는 글이나 말과는 다른 자신만의 특성을 더욱 가속화하여 드러내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드러나는 대비적 성격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둘째, 어휘 계량에서 자료의 대표성 문제는 언제나 등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표성 문제는 매우 큰 단위의 어휘 계량을 통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결국 어휘 계량은 언제나 계량 자료에 의한 한계를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의 방법을 택하였다. ‘방가, 글쿤’과 같이 글말에서만 사용하는 특이한 표기법은 ‘반갑다, 그렇다’와 같이 정서법에 맞게 일단 고친 후에 계량하였다. 이는 글, 말과의 계량적 대비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영문자 표기 등은 그대로 영문자로 계량하였다. 다만 ‘하이, 하이루, 하2’ 등과 같이 동일한 표현을 음상만 달리하여 표현한 경우는 모두 ‘하이’와 같이 하나의 단위로 계량하였다.

계량의 대상이 된 어휘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 (1) 개별 어휘의 수 : 2,026개
- (2) 전체 어휘의 수 : 12,223개
- (3) 운용 비율²⁾ : 6.03 (12,223/ 2,026)

II. 계량 및 분석

1. 고빈도어

전체 어휘의 빈도수를 조사하였다. <표 1>은 고빈도 순으로 70위까지의 어휘이다. 빈도로는 30회 이상 어휘이다³⁾.

본고에서 글말의 계량 결과를 글과 말의 계량 결과와 대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료는 줄고(1993)과 줄고(1997) 및 水野俊平(1993)의 분석 결과이다.⁴⁾ 말은 1990년 KBS2TV에서 방영된 아침 드라마 ‘일출’ 30회

-
- 2) 운용 비율이란 전체 어휘의 수를 개별 어휘의 수로 나눈 것으로서 한 개별 어휘가 평균 몇 회나 쓰였는가를 보여준다.
 - 3) 고빈도 어휘가 어느 정도의 비율인가를 선택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채 어휘 빈도 수 30과 고빈도 어휘 순 70을 비교의 편의상 택하였다.
 - 4) 이러한 비교 대상의 설정은 이들이 가장 좋은 비교 대상 자료인가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서로 상이한 성격을 가진 자료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비교 대상 자료로 선정한 것은 이들 이외에 비교 대상 자료로 삼을 만한 다른 자료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분(1회-30회)에서 중학교 2학년으로 등장한 한 여학생의 대화를 대상으로 필자가 조사한 결과이다. 글은 1992년 전남 승주군 소재 낙안중학교

순 위	빈 도	어휘	순 위	빈 도	어휘	순 위	빈 도	어휘	순 위	빈 도	어휘	순 위	빈 도	어휘
1	428	나	16	102	살다	31	75	분	46	47	너무	61	35	무슨
2	347	하다	17	102	예	32	70	알다	47	47	모두	62	35	그
3	239	반갑다	18	101	좀	33	69	다	48	46	아	63	35	정말
4	188	저	19	97	아니	34	68	살歲	49	43	모르다	64	34	방장
5	186	하이	20	91	보다	35	64	나가다	50	43	몇	65	34	나오다
6	157	것	21	87	안녕	36	64	말	51	43	21	66	33	응
7	152	놀다	22	86	소개	37	57	오다	52	41	바보	67	33	예
8	149	없다	23	84	은주	38	57	같다	53	41	그럼	68	33	이
9	123	있다	24	82	아니다	39	55	여기	54	40	대딩	69	32	음
10	123	가다	25	81	내	40	53	부산	55	39	지금	70	31	느리다
11	122	그러하다	26	80	되다	41	53	남	56	38	남자			
12	120	너	27	80	누구	42	52	착하다	57	37	잘			
13	109	왜	28	79	여자	43	50	말다勿	58	37	맞다			
14	106	뭐	29	77	주다 ³	44	48	죽다	59	37	کم			
15	105	사람	30	77	어디	45	48	좋다	60	37	또			

<표1> 글말의 고빈도 어휘

남녀 1, 2, 3학년 학생과 광주광역시 소재 봉산중학교 남녀 1, 2, 3학년 학생의 ‘어제 있었던 일’이란 제목의 작문 글에 쓰인 어휘를 대상으로 필자가 조사한 결과이다. 잡지⁵⁾는 1992년 2월 2일자 “주간조선”의 본문 중 표본한 것을 대상으로 한 水野俊平(1993)의 계량 결과이다. 각 조사 대상 어휘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⁶⁾

- 5) 글의 하나로 잡지를 포함한 것은 중학생의 작문 ‘어제 있었던 일’이 중학생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기록한 것으로서 글이 가지는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글의 성격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예를 보이기 위한 것이다.
- 6) 어휘 규모가 커질수록 고빈도어휘 중심 현상이 발생하므로 여기서 드러나는 비교 대비 성격은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다.

구분	전체 어휘의 수	개별 어휘의 수	비고
말	4,976	1,172	
글	19,067	3,347	
글(잡지)	24,243	7,105	

<표2> 비교 대상 어휘의 규모

다음의 표는 드라마에서 중학생이 대화한 내용의 어휘를 계량한 것 중 고빈도 순으로 70위까지 제시한 것이다. 빈도율이란 실제 빈도수가 아니라 전체 어휘의 수를 10,000개로 계산하였을 경우의 빈도 비율을 나타낸다. 이러한 빈도율을 사용한 것은 글말에서 계량한 전체 어휘의 수가 12,223개인 점을 감안하여 대비의 규모를 비슷하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빈도 율	어휘	빈 도 율	어휘	빈 도 율	어휘	빈 도 율	어휘	빈 도 율	어휘
383.9	엄마	99.40	할아버지	55.76	아이티	36.37	너무	26.67	학교
321.6	것	97.79	가다	54.15	좋다	36.37	오늘	26.67	마음
311.9	나	90.51	알다	53.34	네	36.37	응	26.67	생각
231.1	하다	82.43	선생	50.91	사람	35.56	이야기	26.67	할머니
164.1	그러하다	80.81	없다	46.87	때	34.75	누구	25.86	일事
160.8	보다	78.39	오다	43.64	않다	33.13	말이다8	25.86	이0
148.7	저我	75.97	오빠	42.02	무엇	31.52	아니8	25.05	주다
148.7	있다	67.88	같다	42.02	수4	31.52	살다	25.05	그럼6
140.6	아저씨	63.04	아빠	39.60	생각하다	28.29	사다	25.05	때문
138.2	고모	63.04	그0	38.79	집	28.29	말言	25.05	먹다
125.3	되다	58.99	아니다	37.98	모르다	28.29	그것		
114.8	우리	56.57	왜	37.98	다	28.29	무슨		
113.1	아니	56.57	진짜	37.17	나다	27.48	공부		
109.9	주다3	56.57	좀	37.17	싫다	27.48	만나다		
103.4	삼촌	56.57	어떠하다	37.17	이러하다	26.67	시험		

<표3> 말의 고빈도 어휘

글말의 고빈도어를 말의 고빈도어와 대비하여 살펴보면 몇 가지 글말의 경향을 알 수 있다. 우선 인사말, 특히 소개하기의 인사말과 관련된 어휘의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반갑다(3위), 하이(5위), 안녕(21위), 소개(22위)’를 비롯한 어휘들이 그러한 예이다. 이처럼 소개하기 인사말 어휘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화방의 대화가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혹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매번 다음과 같은 소개하기 형식의 대화가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1 >

11:14:15 미여니님이 입장하셨습니다.

11:14:22 한비광님이 입장하셨습니다.

(한비광) 모두 방가

(미여니) 방가방가

(한비광) 여기 누구 없어요?

입력시간 초과로 담치님이 퇴장했습니다.

(한비광) 나랑 놀사람

(미여니) 나랑 놀사람..

(왕초) 방가

(미여니) 없나?

(한비광) 미여니 나랑 놀아요?

11:15:44 @잘나간눔@님이 입장하셨습니다.

(미여니) 방가

(@잘나간눔@) 하2

11:15:49 백발마녀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잘나간눔@) 혼자?

11:15:57 유리님이 입장하셨습니다.

(한비광) 소개좀..

(미여니) 한비광은 몇살?

(@잘나간눔@) 광주 17 남.

(한비광) 먼저/

(한비광) 오타
 (백발마녀) 하이루~~~~~`
 (유리) 하이
 (미여니) 난 19살 고딩
 (유리) 하이
 (유리) 하이
 (미여니) 컴이 무지 느리다.
 (@잘나간놈@) 난 17 누나.....
 (한비광) 전 19살 고딩
 (미여니) 어디살어?
 (유리) 전김해살고17여저랑놀남자분
 (한비광) 전북 순창 그 쪽은요?
 (한비광) 컴이 느리네..
 (미여니) 난 경기도 수원

다음 대화방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어휘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하이(5위), 대딩(54위), 컴(57위), 방장(65위)’의 예가 그것이다. 특히 ‘하이’와 같은 표현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이런 표현이 글말에서 이미 상용화 차원을 넘어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표현은 가장 쉽게 일상 어휘화 되고 있다.

43위의 ‘21’과 같이 숫자가 고빈도어에 오르는 것은 <1>의 예에서 보듯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대체로 나이를 숫자로 언급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N-세대의 의식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어휘도 있다. 7위의 ‘놀다’는 이들의 주요 관심사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대화방 대화가 진지한 내용을 가진 대화로 구성되기보다는 그저 심심풀이식이나 기분을 전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놀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이다. 글말에서는 ‘놀다’라는 어휘의 의미가 매우 확장되어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또 말에서는 12위에 위치해 있고 대부분의 계량 결과에서 매우 고빈도어에 속하는 ‘우리’가 글말에서는 70위 내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글말의 계량에서 ‘우리’는

21회의 빈도로 100위에 위치해 있다. 반면에 ‘나’는 글말에서 2위인 ‘하다’와 매우 큰 차이를 보이면서 1위에 위치해 있다.

말과 비교해 볼 때 특히 수식어, 지시어, 감탄어가 매우 많고 반면에 개념어의 수가 현저하게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품사별 분포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글말의 경우 70개 전체 어휘의 수 5,794개 중에서 의존명사를 제외한 명사는 7개 398어인 반면, 말에서는 전체 70개 전체 어휘의 비율 5181.98 중에서 명사가 22개 1563.98을 차지한다.⁷⁾

	개별 어휘		전체 어휘		비고
	어휘의 양	비율	어휘의 양	비율	
글말	7개	10%	398	0.07%	
말	22개	31.43%	1563.98	23.19%	

<표4> 고빈도어에서 명사가 차지하는 비율

결국 고빈도어의 경우만 예로 들자면 말에서는 명사가 23.19%를 차지하는 반면 글말에서는 고작 0.07%만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고빈도어에는 말이나 글과는 달리 ‘하이, 컵’과 같은 외국어가 포함되어 있다.

2. 품사별

글말의 어휘를 품사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은 비율로 나타난다.

7) 말의 경우는 드라마의 대본이기 때문에 호칭어와 지칭어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인 대화의 경우 명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품사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관형사	감탄사	보조 용언
비율	35.61	10.28	2.83	17.19	12.72	9.10	1.98	7.43	1.71

<표5> 글말 어휘의 품사별 비율

이러한 결과를 글, 말, 잡지의 경우와 대비해 보면 다음과 같다.

품사	명사	대 명 사	수사	동사	형 용 사	부사	관 형 사	감 탄 사	보조 용언	고유 명사
글말	35.61	10.28	2.83	17.19	12.72	9.10	1.98	7.43	1.71	
말	39.83	8.02	0.62	22.43	8.98	10.57	2.23	2.11	4.36	0.84
글	39.84	5.45	2.52	26.67	7.25	9.15	2.58	0.50	4.41	0.96
잡지	70.1	0.3	1.3	15.7	3.8	2.2	6.9	0.0		

<표6> 글, 말, 잡지, 글말 어휘의 품사별 분포 비율⁸⁾⁹⁾

우선 글과 말을 비교해 볼 때 글보다는 말에서 대명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의 비율이 높고, 반면에 수사의 비율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잡지와 비교해 보면 현저하게 드러난다. 글은 명사와 관형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반면에 말은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글말의 언어가 감각적인 언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글말은 품사 분포에서 대부분 말과 유사하다. 우선 명사의 비율이 가장 낮으며, 따라서 관형사의 비율도 가장 낮다. 대신 대명사, 형용사, 감탄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감탄사의 경우 다른 형태의 말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이는 다음과 같이 글말에서 감탄사의 변형들이 매우 많이 쓰이기 때문이다.¹⁰⁾

8) 보조 용언과 고유 명사는 필요상 따로 계량하였다. 그러나 빈 곳은 따로 계량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9) 전체 어휘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10) 지금은 타자의 편리함 때문인지 다음과 같은 감탄 ‘표기’ 형태도 보인다.

크랏 허억 으으으음 우웅 푸 케케 앓 기림기림 마저마저 아우 엉 푸욱
푸욱 흐객

그러나 글말의 수사와 동사의 비율은 말보다는 글의 수준에 가깝다. 동사의 비율이 낮은 것은 상당한 표현이 서술어를 생략한 채로 구성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사의 경우는 앞서 지적한 대로 자기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이를 대체로 명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사는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31사단’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숫자로만 표기된 것은 다음과 같았다.

	전체 어휘의 수	개별 어휘의 수	운용 비율
아라비아숫자 표기의 수	311개	64개	4.86회

<표7> 아라비아숫자 표기 글말의 어휘 수

수사의 전체 어휘 수가 346개이니 아라비아숫자로만 표기된 것은 90%에 이른다.

‘잡지 → 글 → 말 → 글말’의 순서로 비율이 증가하는 품사는 대명사, 형용사, 감탄사이다. 관형사는 반대의 순서다. 부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글말이 잡지와 글의 사이에 위치하는데 이는 글과 말에서 부사가 차지하는 표현 중 상당 부분이 글말에서는 감탄사로 처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어종별

글말의 어종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ㅋㅋㅋㅋㅋㅋㅋ ㅎㅎㅎㅎㅎ
문맥으로 보아 이 표현은 ‘ㅋㅋ크, ㅎㅎㅎ’의 의미로 보인다.

어종	고유어	한자어	외래/ 외국어	혼종어	비고
비율	71.38	18.75	7.49	2.38	

<표8> 글말의 어종별 분포

이러한 결과를 글, 말, 잡지의 경우와 대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어종	고유어	한자어	외래/ 외국어	혼종어	비고
글말	71.38	18.75	7.49	2.38	
말	79.26	16.28	0.70	3.74	
글	71.09	22.24	1.29(1.16)	5.39	
잡지	33.90	52.10	4.70	9.30	

<표9> 글, 말, 잡지, 글말 어휘의 어종별 분포 비율

우선 글과 말을 비교해 볼 때 글보다는 말에서 고유어의 비율이 높고 한자어와 외래어의 비율은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잡지와 비교해 보면 이러한 사실은 두드러진다. 잡지와 비교해 보면 말은 고유어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한자어의 비율이 현저하게 적으며, 외래어의 비율도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¹⁾

흥미로운 것은 품사의 경우 글말이 말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반면 어종에서 가장 중심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경우 글말이 글과 말의 사이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말에서는 고유어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글에서는 한자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글말이 글이나 말과는 다른 차원의 표현 체계임을 말해 준다.

글말의 경우 한자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외래어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어의 경우는 3.21%를 차지하였다. 또

11) 말에서 외래/외국어의 비율이 낮은 데에는 조사 대상 드라마가 아침에 방송되는 가족 드라마로서 표현에서 외래/외국어의 사용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영어로만 표기된 경우도 매우 많았는데 영어로만 표기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전체 어휘	개별 어휘	운용 비율
영어 문자로 표기된 어휘 수	89	54	1.65

<표10> 영어 문자 표기 글말의 어휘 수

전체 외래/국어의 수가 916개이니 영어로 표기된 어휘의 수는 10%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글말에서 혼종어의 비율이 낮은 것은 혼종어의 상당 부분이 외래어나 외국어로 표기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글말에서는 국어 표현이 상대적으로 감소해 가고 외래어나 외국어 표현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글말로서의 대화방 언어

대화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글을 매체로 하지만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글말의 어휘에 대한 계량은 글말이 글보다는 말의 성격에 더 가까우면서도 말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이러한 글말의 성격을 어휘 계량과는 다른 차원에서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대화의 길이와 관련된 계량의 결과이다. 이선희(1999)는 위와 동일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대화 당 문장의 수와 문장 당 어휘의 수 등을 계량하였다. 대화의 단위는 한 사람이 말을 시작해서 상대방에게 말이 넘어갈 때까지이다. 계량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이선희 1999:18).

전체 대화 수	전체 문장 수	대화 당 문장 수	전체 어휘 수			문장 당 어휘 수
			단어	문장 부호	특수 문자	
216	290	1.34	712	50	46	2.46

<표11> 글말의 문장 당 어휘의 수

한 대화 당 문장 수는 평균 1.34개로 한 번의 대화는 대개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문장 당 평균 단어의 수는 2.46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특수 문자를 합하더라도 문장 당 단어의 수는 2.61개에 불과하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는 필자가 ‘일출’을 대화를 조사로 한 결과와 대비해 보면 무척 흥미롭다. 필자(147)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대화의 수가 16,367개이고 전체 어휘의 수는 105,252개이어서 대화에 쓰인 평균 어휘의 수는 6.43개였다. 문장 당 단어의 수를 계량한 결과는 없지만 문장 당 단어의 수가 대화 당 단어의 수를 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따라서 대화방의 글말은 일반 대화보다도 훨씬 더 짧은 수의 단어로 문장이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글과 말에 대한 일반적인 비교를 하여 보면 글은 말에 비하여 정보의 양이 적으며, 문자 자체보다는 시각이나 청각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상황 의존성이 현저하게 높으며,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주어지고 이러한 피드백은 대화의 전체 흐름에 바로 반영된다.

첫째, 정보의 양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명사의 사용 양을 들 수 있다. 앞의 고빈도어를 대상으로 한 명사의 양적인 분류를 살펴보면 글말의 대화가 대화의 말보다 오히려 명사의 양적인 면에서 현저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체 어휘의 수가 늘어날수록 어휘 전체가 보이는 특징보다는 고빈도어에서 보이는 특징이 현저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둘째, 대화방의 대화는 대화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 상대의 응답은 즉각적으로 피드백되며 그 피드백은 대화의 흐름에 즉각 반

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화방의 언어는 말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일반 대화의 경우에는 말을 하면서 동시에 상대의 피드백을 살필 수 있는, 즉 말하기와 듣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반면 글말하기는 상대가 자판에 입력하여 엔터키를 치고 이것이 모니터 화면에 나타날 때까지는 상대의 피드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대화방의 대화는 말과 다른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더구나 상대는 눈앞에 나타나 있지 않으며 대화 참여자는 언제든지 대화를 그만두고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대화 참여자가 나갔다는 확인이 있기 전까지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대화 참여자들은 상대의 반응이 없을 경우 이를 수시로 확인하게 되고, 대화 참여자들은 자신이 아직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어떻게든 이를 모니터의 화면상에 나타내려고 한다. 따라서 글말하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글말’들이 심심찮게 등장하게 된다.

p¹²⁾ / / ???????????

이러한 표현들은 어쨌든 대화와 같이 즉각적인 피드백을 보여주기 위한 몸부림의 일종으로도 해석된다. 다시 말해, 이러한 표현들에 익숙해지면 실제 만나서 수다를 떠는 것과 동일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대화방의 대화에서도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시각적 요소를 기호화하여 사용한다. 마치 현재 대화 상대자를 눈으로 보듯이 대화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글에서 시각적 요소는 구두점이나 삽입되는 그림 혹은 문자의 크기의 변화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글말에서는 직접적인 표정을 글자판 기호의 조합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표현한다.

흐뭇 ^^ / ^^* / -_- ++

12) ‘p’는 감탄사 ‘피’라고 짐작된다.

다음은 대화방의 실제 대화의 한 부분이다. ()의 번호는 필자가 인용의 편의상 붙인 것이다.

<2>

- (1) 너 19회실기보냥..? - -
- (2) 응.. ^^;;; 연습 하나두 안했쥐이...
- (3) 너 19회실기보냥..?
- (4) 음..
- (5) -_- 이것두 아슬아슬 할거가테..
- (6) 너 18회 실기 본단마라..??
- (7) -_- ;; 잠깐만..
- (8) 허억.. - - 어쩌케 원서냈냥..? - - ;
- (9) 이번달에 보는게 몇헌데? 이번달에 보는건데..
- (10) 18회
- (11) 그럼 18회 보는거구냥..^^;;
- (12) 위이.. 이런.. - - ;;
- (13) -_- ;;; 몬 소리여.. 나 이번달에 보는거 냈대니깐..
- (14) 글썽
- (14) 무자게 바쁘게 냈쥐..^^;;
- (15) 너라두 붙어라 - -
- (16) 고맙다... Y.Y
- (17) 난 빈둥빈둥 노라야겠다 - - ;‘
- (18) 붙으라고 해주는 사람 너밖에 없구냥.. Y.Y
- (19) 근데 그 눈빛은 모냥..^^;;;
- (20) 눈치챘구나 - -
- (21) 배아퍼 죽겠다-- ;;;;;;;;;
- (22) ^^;;;;;;;;; 해해해해했..
- (23) ^^;;;;;;;;;
- (24) 난 그대신 정보처리기능사 준비할꼬다
- (25) 멍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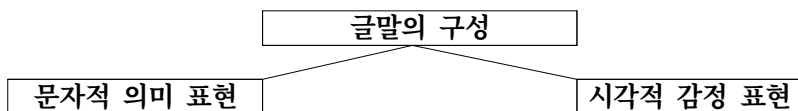
(26) 오오오옷..0.0

(27) 그.. 그것은?

(28) 독학?

우선 억양, 어조, 음색과 같은 준언어(para-language)적 요소들을 보여 주기 위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 (25), (26), (27)과 같은 경우는 실제 준언어적 요소를 표현하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글말이 두 부분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한 부분은 문자를 통해 언어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으로서, 이 부분은 의미의 중심 부분을 이루는 언어적 의사소통의 기능을 담당한다. 다른 한 부분은 언어적 메시지에 수반되는 자신의 표정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으로서 비언어적 의사소통(nonverbal communication)의 기능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21) 배아퍼 죽겠다--;;;;;;;;;’의 경우 ‘배아퍼 죽겠다’는 문자적 의미 표현 부분이고, ‘--;;;;;;;;;’는 시각적 감정 표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자적 의미 표현’과 ‘시각적 감정 표현’의 구성에서 항상 문자적 의미 표현 부분이 앞에만 오는 것도 아니고, 문자적 의미 표현 부분이 모든 대화마다 반드시 들어 있는 것도 아니다. 또 대화의 사이에 시각적 감정 표현 부분이 삽입되기도 한다.

<3>

(2) 응.. ^^;;; 연습 하나두 안했잖이...

(7) -_-;;; 잠깐만..

(13) -_-;;; 몬 소리여.. 나 이번달에 보는거 냈대니깐..

(22) ^^;.....; 헤헤헤헤헛..

(23) ^^;.....; ;;;

이것은 마치 대화에서 아무 말 없이 웃고만 있다가 뒤에 말을 덧붙이거나, 아무런 말이 없이 표정으로만 대화하는 것이나 혹은 대화하면서 동시에 표정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6), (7)과 같이 문장 부호가 연속되어 나타나는 것은 문장 부호로서의 성격보다는 시각적 처리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들도 시각적 감정 표현 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6) 너 18회 실기 본단마라..??

(7) -_- ;;; 잠깐만..

비언어적 요소의 기능은 크게 언어적 의미의 강화, 대치, 보완, 모순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만 일상 대화에서는 이러한 비언어적 요소가 대체로 무의식적인 반응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반면 글말에서는 의식적으로 자판을 통해서 표현한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비언어적 요소의 기능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표현되는 모순의 기능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시각적 표현 이외에도 (25), (26), (27)과 같이 실제 대화의 장면을 녹취한 듯한 표현 효과를 노리는 것도 준언어(para-language)적인 요소의 활용 노력으로 보인다.¹³⁾

<5>

(25) 땀옴^^;

(26) 오오오웃..0.0

13) 대화방의 글말 언어에 ‘그러줘 마라여/넌 듣기 조아/이눔아/쟈/넌/무료임다/모해요/유료되문/그만해염/안한당’와 같이 비음 계열의 ‘ㄴ, ㄹ, ㅇ’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경우도 일종의 구어체 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7) 그.. 그것은?

대화방의 대화는 컴퓨터라는 통신 매체에 의존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체의 기능에 대한 확인 질문을 하기도 한다.¹⁴⁾

<6>

세이가 가난 말이다 -- :

-- ;;

너가 한번 세이 보내봐 ~~~

알찌 ..??

... 넌 콜 상태에서 세이 하나?

내가 끄늘테니까.. - -

하란마랴..

마지막으로, 대화방에 참여하는 대화자들은 글말하기와 글쓰기를 분명하게 다른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다음의 예는 보여주고 있다. 이 예는 필자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화방을 이용하여 공동 작문을 하도록 한 과제를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화방의 글말하기 중 일부이다.

-
- 14) 그러면서도 대화방의 대화에서 자주 욕설이 등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대화와는 달리 이들이 서로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그것도 익명성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만약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직접 대면하여 대화를 한다면 이러한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백호랑...) 아~~죽자!!!

(백호랑...) 쌍 죽어버려!!

(백호랑...) 니미??

(재우) 우와 노쳐녀다!!!!

(백호랑...) 죽어!!

(배짐) >미소씨

<7>

(행수님)하이 이쁜 아가씨...

(이미연)전 지금 바쁩니다.

(행수님)왜여?

(민하기)미연

(민하기)빨리하자

(이미연)우리시작해요

(행수님)머가 바빠여?

(이미연)내가 먼저...

(행수님)뭘 시작해...

(민하기)글 짓기

(이미연)아침에 일어났더니 비가 오고 있었다.

(행수님)근데 그 때 골목에는 크나큰 등치를 가진 사람이 우리 집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민하기)등치가 산만해서 걸어오는 모습인란...엉덩이가 실룩실룩해서 꼭 살찐 돼지 같았다

(이미연)그 꼴이 우스워서 깔깔 웃어댔더니

12:18:40 아쵸짱이다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아쵸짱이다)오빠,, 안뇽

(아쵸짱이다)어,,,,

12:18:55 니나노님이 입장하셨습니다.

(행수님)누구암...

(아쵸짱이다)나,,,,이@뽀

굵은 글씨체로 표현된 부분은 글쓰기이다. 학생들은 대화방의 대화를 하다가 글쓰기에 들어서서는 일반적인 글쓰기의 원칙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도 대화방 글말하기에 이르면 다시 대화방의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IV. 결론

글말은 대체로 잘못된 국어 사용 현상의 표본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어 교육의 대상에서도 방치되어 왔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글말을 교육적으로 수용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둘째, 글말을 글이나 말의 성격으로만 규정하여 글말 자체의 표현 방식과 어법을 잘못된 것이란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현실로서의 글말의 존재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말은 이미 학생들의 일상적인 언어가 되었다. 다음은 이선희(1999)에 인용된 학생의 컴퓨터 게시판의 게시 글과 편지 글의 일부이다.

<8>

제목: 쌤님 미오~~~

선생님 약속을 어기시다니요.

흑흑흑 TT.TT

전에 X-japan 노래 올린거 삭제 안하다고 하셔놓구선 왜 삭제 하셨나 여~~~!!!

전 영원한 X의 팬이기 때문에 굴복할수 없습니다...

전 X의 외모, 그런것 보다 순수한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여...

(게시일자 1999년 9월 2일)

<9>

하2루!!!

나 “00”야...

너한테 첩 쓰는 편지당!그치?!?!

<중략>

글구 너두 답장써...아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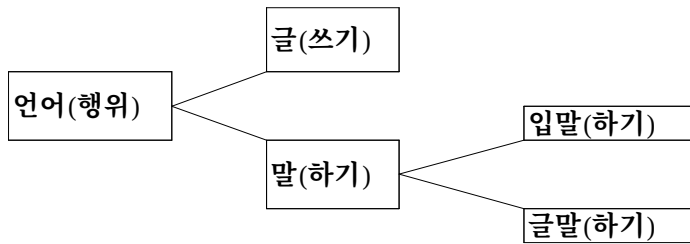
그럼, 20000 쓸게.

지금까지 살펴본 글말의 성격은 글말을 글이나 말과 같은 차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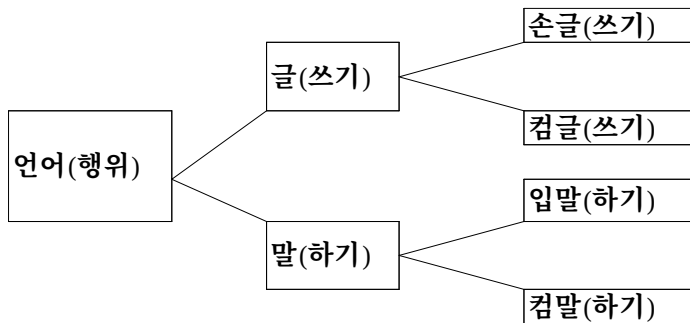
하나의 국어 표현 체계로 인식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학생들의 언어가 내용 중심보다는 기발한 표기 발상 중심의 감각적인 언어로 흘러가고 기존의 언어 문법이 파괴되어 가는 현실은 더욱 글말이 국어 교육의 장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져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글말을 글이나 말과 더불어 국어의 표현 체계로 포함하게 되면 언어적 의사소통 매체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표현 체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글말(하기)를 일단 말하기의 범주로 규정하고 이를 다시 구두언어를 매체로 하는 말하기와 구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가>나 <나>와 체계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가>



<나>



참고 문헌

- 임철성(1993), “중학생 일상 어휘의 계량적 고찰”, 임철성 외(1997) 所收.
임철성(1997), “국어 계량의 단위 설정에 대하여”, 임철성 외(1997) 所收.
임철성(1997), “연령별 성별 어휘 사용의 계량적 고찰”, 임철성 외(1997) 所收.
임철성 · 水野俊平 · 北山一雄(1997), 『한국어 계량 연구』, 전남대출판부.
水野俊平(1993), “현대 한국어 어휘 구성의 계량적 고찰”, 임철성 외(1997) 所收.
이선희(2000), “컴퓨터 대화방 언어 고찰”,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은희경(1999),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 창작과 비평.